

唐門

불기 2567년

봄호

통권 제163호

唐門寺增改大學

亮山踞雲門門寺

智



## 구름문을 펼치다

- ◎ 찬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 준 매화에 감사를 전합니다. 치문반 힘든 시간 이겨내고 꽃을 피워 봐요! / 1학년 현소
- ◎ 운문 도량에 사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얀 운용매와 같은 봄의 향이 번져나기를… / 1학년 해묵
- ◎ 파릇파릇 새로이 돋아나는 새싹을 보며 우리들도 피어나기 / 1학년 진정
- ◎ 봄 소식은 오는데, 내 소식은 언제 오려나 / 2학년 서현
- ◎ 내 생각에 내가 속고 사는 줄 알면 매화꽃 가득한 장군평이 극락이라네 / 2학년 삼우
- ◎ 웅크리고 주저하는 마음 대신 새봄에는 씩씩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2학년 덕유
- ◎ 따스한 봄의 햇살을 받으며 나도 이처럼 따뜻한 스님이 되리~ 다짐해 봅니다 / 3학년 혜건
- ◎ 시리게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목련처럼, 우리의 마음도 펼쳐 보아요 / 3학년 도솔
- ◎ 흘러가는 구름, 피어나는 꽃, 뜨고 지는 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하~ / 3학년 혜성
- ◎ 청매화의 향기가 도량에 스며들듯 수행도 천천히 스며들어 가네 / 4학년 경문
- ◎ 봄바람에 강길 따라 걷다 보니 화장장업세계 아닌 곳 없구나 / 4학년 보선
- ◎ 톡, 톡, 톡. 겨울을 머금은 어린잎이 봄 햇살의 인사에 활짝 미소를 띠네 / 4학년 원경

# 雲門

## 목차

- |   |  |
|---|--|
|  | <p>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p> <p>04 죽림현 망용상덕望龍象德 능인장고能忍長苦 명성</p> <p>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목계木鷄의 덕德 원법</p> <p>08 교수논단頓漸論에 대한 비교 고찰 ①<br/>- 知訥의頓悟漸修를 중심으로 - 진광</p> <p>12 학인논단 기원정사와 라자까라마(Rājakārāma)<br/>그리고 운문사 ② 서쪽</p> <p>16 선지식 탐방 거울의 끝자락에 만난 선지식<br/>- 청도 대감사 설우 스님 경문</p> <p>20 수행의 두레박 하나 오직 모를 뿐 덕유</p> <p>22 운문, 운문인 불꽃 깃든 도량, 수행의 향기 편집부</p> <p>24 외부기고 한국불교를 이끄는 원동력!<br/>붓다의 딸들 정운</p> <p>29 방부소감 문문 도량에서 참된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1학년 학인들</p> <p>32 화랑동산 조조씩 문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세상 편집부</p> <p>34 수행의 두레박 둘 여의원만如意圓滿<br/>- 모든 것이 뜻대로 원만하게 영원</p> <p>36 차례법문 내 꿈은 진정한 행복 찾기 보선</p> <p>41 想 혜혜미소慧慧微笑 원경</p> <p>42 이 한 권의 책 「가장 행복한 공부」<br/>- 청화 스님 말씀 도현</p> <p>44 운문논평 송가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고小考 편집부</p> <p>46 운문소식</p> <p>47 등불 걸식乞食하는 이유</p> |
|---|--|



망용상덕望龍象德 능인장고能忍長苦

명성 / 운문사 회주



학인 스님들께서는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망용상덕望龍象德하야 능인장고能忍長苦하고 기사자좌期獅子座하야 영배욕락永背欲樂이니라.’라는 구절을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용상의 덕을 회방한다면 능히 긴 고통을 참아야 하고, 사자좌를 기약하고자 한다면 영원히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용과 코끼리는 수상水上과 육상陸上에서 으뜸이기에 수승한 선정력禪定力を 갖춘 고승 대덕 스님을 의미하며, 위엄 있고 용맹한 능력을 갖춘 수행승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한 사자도 짐승의 왕이 아닙니까. 산 중에서 사자가 포효를 하면 못 짐승들이 흔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자와 같은 기상을 가진 어른 스님들이 올라가서서 법문하는 법좌를 사자좌라고 합니다.

그럼 사자좌에 올라 감로법문을 해주시는 더 높은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효 스님께서 제시하신 수행법은 바로 인욕忍辱입니다. 고통을 참는데 찔찔매면서 참는 것이 아니고, 능히, 기꺼이, 거뜬하게 긴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히 참는다는 것은 바로 인욕바라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밀이란 도피안度彼岸이라 번역하는데,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지요. 생사의 세계에서 생사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불보살님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건너가는가? 인욕을 통해서 건너갑니다.

대중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기게 되는 억울한 일, 힘겨운 일, 답답한 일들을 참고 견디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의 스님들은 어쩌면 뭔가를 참는다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어리석게 왜 참아야 하는 것인가? 하고 말하고 싶은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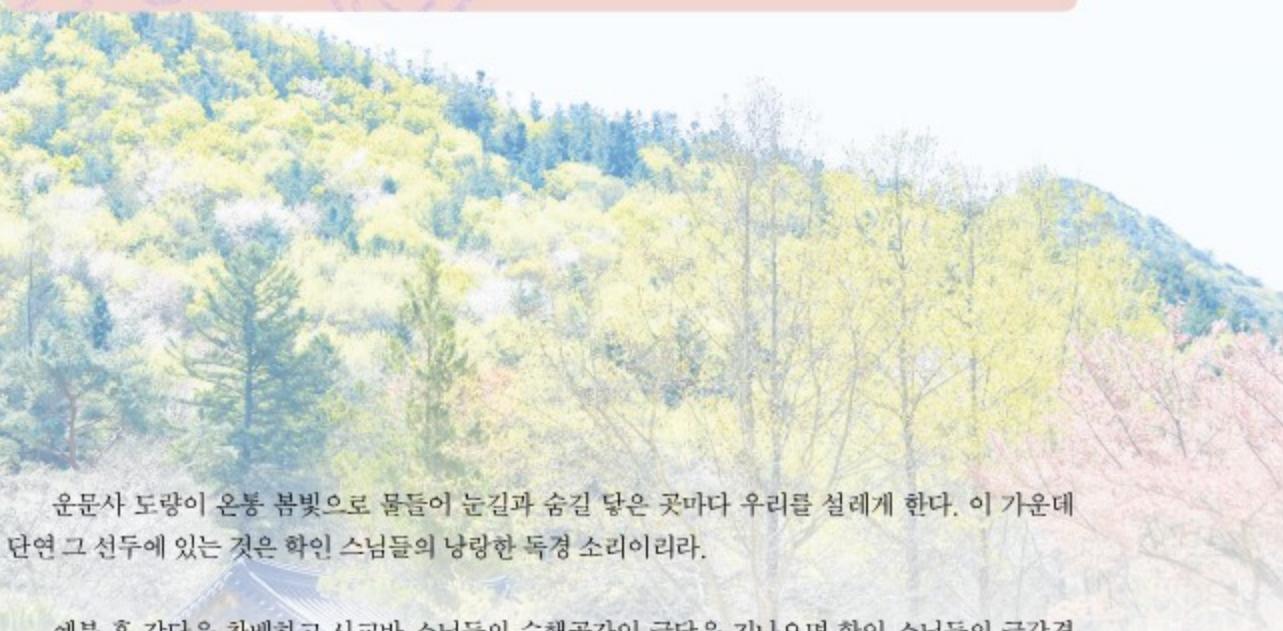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참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엔 ‘나’ 가 존재합니다. ‘나’ 란 무엇일까요? ‘나’ 라고 생각하는 그 ‘나’ 를 내려놓는 일을 도와 주는 수행이 인욕이기 때문에 인욕은 우리에게 생사의 언덕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운문사 곳곳에 봄이 한창입니다. 은행나무에도 처진 소나무에도 봄이 왔습니다. 처진 소나무의 나이는 무려 오백오십 세 가량이나 됩니다. 우리 학인 스님들께 이 봄, 처진 소나무의 법문 듣기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지요.

건강하고 활기찬 봄철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

## 목계木鷄의 덕德

원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운문사 도량이 온통 봄빛으로 물들어 눈길과 숨길 닳은 곳마다 우리를 설레게 한다. 이 가운데 단연 그 선두에 있는 것은 학인 스님들의 낭랑한 독경 소리이리라.

예불 후 각단을 참배하고 사교반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금당을 지나오면 학인 스님들의 금강경 독송 소리가 마음에 흘러든다. 이 소리에 새벽은 더욱 적적寂寂해지고 비로소 도량신이 기지개를 편다. 한낮의 지친 도량을 말끔히 씻어 정화해 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한 합송合誦의 공덕이다. 이렇게 맑혀진 도량은 또 하루를 겸손하게 온갖 만물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이 봄날이면 항상 잊지 못하는 한 편지가 있다. 바로 운문사에 방부를 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은 은사 스님의 편지이다.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여래의 방이란 큰 자비심이요, 여래의 옷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인욕하는 마음이요, 여래의 자리는 일체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다.’

은사 스님께서 자비와 인욕을 배우고 실천하여 일체법이 공함을 알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

기를 간절하게 일러주신 것이다. 그러나 인욕은 나에게 그 어느 것보다 더 내기 어려운 마음이다. 출가 후 30년이 지나 명덕明德품서를 받은 지금까지도 말이다.

명덕은 밝은 덕, 즉 반야를 밝힌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야는 일체성품이 자성이 없음을 알아 상相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인욕이 되지 않는 것은 상相에 머물러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강경을 보고 있는 지금 더욱 절절하게 와 닿는다.

하여 닭띠인 나는 늘 목계지덕木鶴之德을 염두에 둔다. 목계木鶴는 『장자莊子』의 「달생편達生篇」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이야기는 이렇다.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투계鬪鶴를 좋아하여 기성자라는 당시 최고의 사육사에게 맡기고 열흘마다 잘 싸울 수 있는지 묻는다. 기성자는 그때마다 닭이 교만하여 자신이 최고인줄 알기 때문에, 또 교만은 버렸으나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반응하여 진중함이 없기 때문에, 또 조금함은 버렸으나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마지막 열흘이 지난 뒤 기성자는 상대방에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마음의 평정平靜을 찾아 나무와 같은 목계木鶴가 되어 닭의 덕德이 완전해졌기에 다른 닭들은 그 모습만 봐도 도망갈 것이라고 하였다. 목계의 덕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 없고 환경에 쉽게 반응하지 않으며 눈에서 레이저 쏘지 않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성자가 최고를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교만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교만은 아상我相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 相에 머물지 않는 것에서 참다운 바라밀 행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인욕은 나를 세워놓고 대상에 대해 일으키는 마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 나, 참을 대상, 참을 일이 모두 연기에 의해 임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금강경을 보는 이 봄날에 목계의 덕을 내 마음에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는 봄이 벌써 아쉬워 도반을 만나 하루를 묵었다. 도반은 새벽까지 좌복에 앉아 있되 공부한다는 상相이 없고, 나는 옆에서 잠이나 잔다는 상相이 불지 않는다. 출가해서 10년은 중물 들이는 시간, 또 10년은 익히는 시간, 또 10년은 중물을 빼는 시간이라는 말이 맞긴 한가 보다. 세월의 깊이만큼 각자의 살림살이를 인정하고 있으니 바로 평정의 어울림이다. 감회가 있어 일없이 읊어본다.

### 宿千聖山 천성산에 묵으며

登庵棲金鳳 암자에 오르니 금봉이 깃들어 있고  
滿目落梅香 눈 가득 매화향기 떨어지누나.  
我睡君長寤 나는 잠자고 그대는 길이 깨어 있으니  
弄春法界相 봄을 회통하는 법계의 모습이네. 7

# 頓漸論에 대한 비교 고찰 ①

- 知訥의 頓悟漸修를 중심으로 -

진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頓漸의 개념과 전개
3. 징관과 종밀의 돈점론 비교
4. 지눌의 돈오점수설의 성립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불교나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깨달음과 닦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또는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닫는 것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론이며 성불론이다. 고뇌의 현실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열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이 문제는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불교사상사

에서도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불교계에서는 1981년 당시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이 돈오점수<sup>1)</sup>의 입장에서 보조 스님(1158~1210)의 돈오점수 사상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사상적·실천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 책의 저술 동기를 말하고 있다.

정법상전正法相傳이 세구연심歲久年深하여 종종이설種種異說이 횡행橫行하여 조정祖庭을 황폐케 함을 걱정하여 선문禪門의 정로正路를 지시指示코자 한다.<sup>2)</sup>

정법이 전해 음이 오래되어 여러 가지 이단의 설이 조사의 문(門庭)을 황폐하게 함을 걱정하여 선의 바른 길을 지시하고자 이 책을 쓴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 이단異端 사설邪說의 대표로서 보조지눌의 돈오점수설을 다음과 지적하고 있다.

무릇 이 사설邪說 중의 일례—例는 돈오점수이다. 선문禪門의 돈오점수 원조元祖는 하택이며 규봉이 계승하고 보조가 역설한 바이다. 그러나 돈오점수의 대종大宗인 보조도 돈오점수를 상술詳述한 그의 『절요節要』 벽두에서 하택은 '지해종사知解宗師니 비조계적자非曹溪嫡子' 라고 단언하였다. 이는 보조의 독단이 아니요, 육조가 수기授記하고 총림叢林이 공인한 바이다. 따라서 돈오점수사상을 신봉하는 자는 전부 지해종도知解宗徒이다.<sup>3)</sup>

사실 선종에서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사자상승師資相承하는 법맥의 정통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종조의 문제는 법맥의 순일한 계승을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선가禪家에서 생명처럼 중대한 문제이다. 성철 스님은 이 『선문정로』에서 거의 8백년 동안 한국불교조계종의 종조宗祖 내지 중흥조中興祖

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누려오던 보조 스님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계와 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sup>4)</sup>

이러한 논쟁을 계기로 본고에서는 우선 돈점론을 중심으로 돈점의 개념이 불교사상사에 나타난 용례들과 전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조 스님의 저서인 『법집별행록절요명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並入私記』<sup>5)</sup>를 중심으로 돈오점수의 구체적 성립배경과 내용 등을 징관과 종밀의 돈점설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현대에 있어 이러한 논의들이 끼친 의미 등을 살펴보자 한다.

## 2. 脫漸의 개념과 전개

돈점의 개념은 수행의 단계 내지 순서와 관련

하여, 또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터דים과 빠름, 혹은 수행의 주체 내지는 교설 수용자의 자질·능력과 관련하여, 그것들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써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종밀은 돈점의 개념에 대해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즈음 시류를 보면 다만 돈점이란 말만 있을 뿐이다. 교에는 화의化儀의 돈점과 응기應機의 돈점이 있고 사람에게는 교수방편教授方便의 돈점과 근성오입根性悟入의 돈점과 발의수행發意修行의 돈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분석하지 않는다.<sup>6)</sup>

이 가운데 화의 즉 설법의 형식에 따른 돈점과 응기 즉 교화의 대상에 따른 돈점은 중국불교 특징

1)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는 어떤 경지일까. 脱의 경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脱은 시간과 공간도 떠날 수 없는 언제나 어디나 놀 다 헌준하는 것이다. '시공을 통털어 환히 드러나고' [大圓鏡智], '있다 없다는 시공의 안팎을 터 버리고' [內外明微], '고요히 모든 것을 드러내는' [常寂常照] 것이다. 또한 '자나깨나 다름없고' [寤寐一如], '죽는다고 없어지고, 산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것' [死中得活]이며, '언제 어디서나 놀 있으며' [無時不存 無所不在] 끊임없이 생동하는 그런 것이다. 일시에 깨치고 더 뒤울 것이 없이 공행을 다 이루는 것이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보고 있다. 전현, 「성철 스님의 돈수론 소고」, 『깨달음의 문학적 지명과 그 현대적 의미』,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 연구원, 2003년), p. 5 참조.

2) 性徹, 『禪門正路』(서울: 불광출판사, 1981), p. 1.

3) 위의 책, p. 3.

4) 이효걸, 「돈점논쟁」,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예문서원, 1995), p. 49 참조. 여기에 대한 논의는 10년 뒤 1990년에야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문제가 학술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입장은 대개 세 관점으로 나뉘지고 있다. 첫째는 성철 스님의 돈오점수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을 다시 비판하면서, 돈오점수설을 지지하거나 응호하는 보조사상연구원측 입장이고, 둘째는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설을 지지하거나 응호하는 해인총림측 수행승들의 입장이 있다. 셋째는 돈오점수의 입장과 돈오돈수의 입장이 가진 근본 취지를 최대한 받아들여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 불교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로 삼고자 하는 입장으로 박성배 교수의 '돈오돈수적 점수설'을 들 수 있다.

5) 이하 「절요」로 약칭. 「절요」는 圭峯 宗密의 저서인 「法集別行錄」의 북종·우두종·충주종·하백종 4가의 선자를 요약하여 별행시킨 것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主旨는 捷頓新 開鑒知로써 먼저 法에는 不變과 隨緣의 뜻이 있고, 사람에게는 脱悟와 減修의 두 문이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4宗의 大義를 總判하고 이어 諸宗의 見解를 밝혀 득실시비를 논한 뒤 定慧圓修·頓悟漸修 사상을 전명하고자 했다. 또한 定慧門·無心合道門·萬行齊修門·解悟·證悟와 7대돈점 등을 두루 밝혔으며, 끝에 본문증사의 徒截門 言口를 이끌어서 知見의 병을 제거하고 出身活路가 있음을 설하고 있다.

6) 『禪源諸詮集都序』, 大正藏, 48, p. 408上.

"頓漸義意 有此多門. … 比見時輩論者 但有頓漸之言 都不分析 就教有化儀之頓漸 應機之頓漸 就人有教授方便之頓漸 根性悟入之頓漸 發意修行之頓漸 於中唯云先頓悟後漸修 似違反也."

가운데 하나인 종파불교의 교관론과 관련되는 것이다.<sup>7)</sup> 중국불교의 경우 돈점의 개념은 교관론 전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교관론 자체가 돈점의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전개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은 교敎의 돈점과는 달리 오입悟入의 돈점과 수행修行의 돈점 등은 人[사람]에 대해서 설해지는 것으로 수행론 내지 성불론의 문제이다.

중국불교에서 수행 또는 진리에의 오입悟入을 둘러싼 돈점의 문제가 커다란 사상적 논점이 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도생(360?-434)이 ‘돈오 성불의頓悟成佛義’을 주장한 데에서 시작된다. 그 제자 도유가 그 돈오의를 잘 통했다고 한다.<sup>9)</sup> 도생의 주장에 대해서 혜관 등이 점오漸悟를 주장하여 비판하였으나 도생의 돈오설은 당시 사령운謝靈運(385~433) 등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sup>10)</sup> 도생 이후, 중국불교계에서 돈수悟修의 돈점 논의가 다시 쟁점이 된 것은 선불교에 있어서이다. 즉 선과 관련한 돈점 논쟁으로는 8세기 말(781~792) 티베트의 삼예(dSam-yas)사원에서 인도 후기 중관파의 대가인 까말라실라Kamalaśila(700~750년경)와 중국의

마하연摩訶衍 화상 사이의 돈오·점수 논쟁이다. 여기서는 중관파인 까말라실라의 승리로 티베트에서 선불교가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sup>11)</sup> 다음으로는 혜능과 신수(606?-706) 사이에 벌어진 남돈南頓·북점北漸의 논쟁이다.<sup>12)</sup> 이것은 하백신회(684~758)가 북종北宗의 신수를 비판하고 남종南宗의 혜능을 세우는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sup>13)</sup>의 논쟁에서 처음 보인다. 그 후로부터 돈오를 주장하는 남종이 선종의 정통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혜능이 돈오를 중시한 것은 『육조단경六祖壇經』 가운데 여러 곳에서 설하고 있는데 간단히 그 개요를 살펴보자.

그러므로 알라. 일체의 만법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 것이니, 어찌 자신을 좇아 진여본성이 단번에 나타나지 않겠는가.<sup>14)</sup>

내가 홍인화상 처소에서 한 번 듣고 대오大悟하니 단박에 진여본성을 본 것이다. 이리

7) 吉潤譜, 「宗密頓悟新修成佛論 체계의 형성과 의의」, 『한국불교학』 제24집(한국불교학회, 1998), p. 228.

8) 중국불교 교관론의 효시로 南地 불교학 교판의 기초가 된 慧顥(5세기 전반)의 돈·점 二敎判과 北地 불교학의 교판에 큰 영향을 준 地論宗慧光(468~537)의 頓·漸·圓 三敎判을 비롯해 劉刺(438~495) 二敎判도 돈·점의 개념을 축으로 형성되었다. 후대의 天台智顥의 교판이나 화엄종의 교판에 있어서도 이 개념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9) 鳩摩羅什의 제자 도생은 ‘得意忘言’의 悟道를 승상하며 ‘돈오성불의’가 유명하다. 宋文帝(424~451)가 도생의 돈오의를 통했다는 제자 도유를 맞이하여 들었다고 하였다. 『梁高僧傳』卷7 道猷傳(大正藏 50, p.374 下)

10) “도생은 경전의 이치를 분석하여 그윽한 진리로 뚫고 들어가 마침내 一闇闃도 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梁高僧傳』「竺道生傳」에 의하면 ‘도생은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언어 문자를 벗어나 두절히 깨달았다. …… 그리하여 진 속 두 진리를 겸밀하고 인과를 깊이 연구하여 마침내 善不受報와頓悟成佛을 설했다’고 한다. 樓宇烈, 『神會의頓悟說』, 『白蓮佛教論集』3(백련불교문화재단, 1993), p.254 참조.

11) 金榮誠, 「中國과 티벳에서의頓漸論爭에서 본 普照의頓悟新修」, 普照思想 제2집(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1988), p.102참조.

12) 하백신회가 唐玄宗開元 20년(732) 5월 15일, 河南省 滑縣 大雲寺 無遮大會에서 보리달마 남종의頓悟禪의 깃발을 내걸고, 神秀系의 北宗은 佛系며 그들의 종지는 漸修法이라고 비난하면서부터 비롯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滑台의宗論’이라고 하는데, 중국선종사에서 최초로 남종이 등장하는 사건이다.

13) 滑台의宗論을 기록한 자료가 敦煌本 『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估隨『神會和尚遺集』(1968년 12월 台北市胡適紀念館)에 收錄)

14) 『六祖壇經』(通行本), “故知一切萬法 盡在自身中 何不從自心頓現真如本性”

한 까닭에 이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니, 도를 배우는 자는 보리를 돈오하고, 자기의 본성을 돈오할 것이다.<sup>15)</sup>

혜능이 여기서 말하는 돈오는 이전의 돈오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이전에 말하는 돈오가 반드시 점수漸修를 기초로 한다면, 혜능의 돈오설은 수습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대오를 얻을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혜능은 또한 다음과 같이 돈점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본래 정교에는 돈과 점의 구별이 없으나 인성에는 자연히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다. 미혹한 사람은 점점 계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단번에 닦는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차별이 없으니 이것이 돈점의 가명을 세운 까닭이다.<sup>16)</sup>

위와 같이 선종에서는 법 그 자체에 있어서는 본래 돈頓이니 점漸이니 하는 것이 있지 않지만, 다만 사람에게 있어서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한 차별과, 견해가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과 점이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정관과 종밀의 돈점설을 비교해 살펴보고, 지눌의 돈오점수설의 성립과 내용을 그의 저서 『절요』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정관과 종밀의 돈점론 비교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에서는 도생이 돈오성불론을 주장한 이래 달마 조사선이 성립되면서 화엄종의 청량정관(738~841)과 규봉종밀(780~841)에 이르러 오수돈점논의는 극에 달한다. 양사는 돈점오수를 통한 깨달음을 해오解悟와 중오證悟에 배대하면서 교와 선을 회통시키고 있다. 즉 화엄과 선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종밀은 정관의 돈점설을 이어 받았지만 전혀 입장은 달리하고 있는 점이 있다. 회통적 견지에서 정혜쌍운定慧雙運은 기본 입장이며 돈점오수에 있어서 깨달음의 내용을 해오와 중오에 배대시킨 것도 온전히 동일하다. 그렇지만 각 돈점설의 세부 설명에 있어서는 깨달음과 닦음의 의미를 달리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표면적으로만 보아도 돈점의 종류가 다르고, 비유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눌 사상의 특징 중의 하나인 돈오점수는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종밀의 돈오점수론을 계승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종밀의 돈오점수론은 교관의 논리이면서 동시에 수행론이자 성불론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며 있으며, 교선일치의 설<sup>17)</sup>과도 맞닿아 있다. 먼저 정관과 종밀의 돈점설에 대한 해석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다음 호에 계속〉

15) 위의 책, “我于忍和尚處 一聞言下大悟頓見真如本性 是故將此教流行後代 會學道者頓悟菩提 令自本性頓悟”

16) 위의 책, 「定慧 4」

“本來正教無有頓漸 人性自有利鈍 迷人漸契 悟人頓修 自識本心 自見本性 即無差別 所以立頓漸之 假名”

17) 종밀은 그가 저술한 「禪序」에서 禪을 5種禪으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教에서와 같이頓漸 두 문에 나누고, 또 禪三宗과 教三宗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순차로 배대하여 선과 교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다.

# 기원정사와 라자까라마 (Rājakārāma) 그리고 운문사 ②

서목 / 4학년

## 목 차

1. 비구니 승가 이루어지다
  - 1) 봇다의 어머니 고타미,  
최초의 비구니 되다
  - 2) 고타미 주변인물과 출가결심
2. 기원정사와 라자까라마
  - 1) 비구 승원 기원정사
  - 2) 「불국기」와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기원정사
    - (1) 법현의 「불국기」에 나타난 기원정사
    - (2)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기원정사
  - 3) 비구니 승원 라자까라마
3. 기원정사와 운문사 시설 및 생활 배대
4.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 3. 기원정사와 운문사 시설 및 생활 배대

### 2. 부처님 공간과 수행공간

#### 기원정사(7층 목조 건물)

1. 불상 두는 곳 : 간다꾸띠(2m 85cm의 정사각형으로 작  
다. 아트막한 벽들 단이 있는데 도솔천에  
울라가신 부처님이 그리워 파세나디 왕이  
만든 전단향 불상의 토대이다.)
2. 설법장소 : 실랄라가라(기원정사에서 가장 큰 강당  
건물, 대중 수백 명을 수용, 방사 겸용)
3. 부처님 방사 : 간다꾸띠, 고삼바꾸띠(간다꾸띠는 기원정  
사에서 장식이 가장 많았다)
4. 시자 : 젊은 비구들과 아난다 시자<sup>[1]</sup> / 시자실
5. 포행 : 부처님 전용 경행처 있었다.
6. 환경 : 숲과 꽃, 나무, 연못 있었다.
7. 상징 : 아난다트리(수단타) 장자가 기원정사 차을  
때 심었는데, 보드기야에서 가져온 보리수  
이다. 부처님께서 다른 곳으로 유행하실  
때 부처님처럼 대하게 된다.
8. 종무소 : 사리불<sup>[2]</sup>과 목갈라나가 주지 역할하며 대  
소사 소임을 해냈고 아난다도 도왔다.

### 운문사

1. 불상 : 대웅보전, 비로전, 직암전, 오백전, 관음전,  
명부전, 16전
2. 설법 장소 : 대웅보전, 청풍료, 만세루(아단법석),  
비로전(면적 189.60m<sup>2</sup>=약 57.35평)  
(비로전은 학인 250명이 앞뒤로 들어서면  
꽉 찰 수 있는 면적이다.)
3. 방사 : 죽림헌(회주스님), 피하당(주지스님)
6. 시자 : 사미니 학인 시자 / 시자실
4. 포행 : 어른스님과 학인의 자유로운 포행
5. 환경 : 화랑동산, 장군평, 사찰 내 꽃나무, 온실,  
호거산, 목우정 등 숲에 버금가는 수목원
7. 상징 : 500년 된 치진소나무와 400년 된  
은행나무는 운문사를 지키는 양대 보살
8. 종무소 : 육화당에 스님과 정인 거주

### 3. 의식주와 기타

#### 기원정사

1. 의식주
  - 분소의 수용, 공양받은 가사도 수용 가능,  
우욕의(雨浴衣)<sup>[3]</sup>
  - 걸식 후 밤우공양<sup>[4]</sup>과 보시에 의지
  - 하루 1끼(08시 전, 후 걸식 시작, 정오 12시 전  
공양)

- 종과 북소리로 식당에 모이다. 토기발우, 철발우 사용
- 갓빼아웃띠-음식저장 및 요리 (사원 밖 가까이에 위치/요리사는 재가자)
- 부처님 우물 외 7개 포함 총 8개
- 불씨 보관처, 불 때는 장소, 독방 훈적 여러 곳 남아 있음
- 목욕하는 연못(제따와나 빅카리니), 아짜라와라 강, 삭발<sup>15)</sup>, 찜질방, 화장실

2. 기타
- 현재 대표적으로 사리불과 목갈라나 스투파가 있다.
  - 파세나디 왕, 수단타 장자, 위사카 등 대표적인 후원자 있었다.

### 문운사

1. 의식주
- 가사 : 조계종 수계가사, 법복 : 대물림 재사용, 새 법복
  - 기도금과 보시금으로 생활
  - 아침 발우공양(06시 시작), 사시 발우공양(주말-11시30분 시작), 목발우 사용
  - 내림목탁 3번 소종 죽비 삼성으로 발우공양 시작(청풍로에서 최대 200명 수용)
  - 하루 3끼 공양, 금요일 오후불식, 후원공양
  - 내림목탁 3번으로 후원공양 시작 알림, 후원 : 04시부터 음식준비,  
아침공양 : 06시 시작, 점심공양 : 11시 30분 시작, 저녁공양 : 오후 5시 시작
  - 미감실(쌀, 건식 식자재 등 보관), 원주실(제기, 불기, 생활용품 창고) 후원 내 : 아채냉장고, 과일냉장고, 냉동고 / 외 : 저온창고, 소금창고, 장독대
  - 불씨 : 가스라이터 및 성냥 이용, 난방 : 기름 또는 전기 보일러, 아궁이 이용
  - 수각은 죽림한 포함 총 11개 : 만세루 앞, 선열당 앞, 삼성각 옆, 채경당 앞, 설현당 옆, 비로전 옆 甘露泉, 금당 옆, 회성당 앞, 선다헌 앞, 육화당 앞
  - 사미니는 학년별 방사, 스님과 어른 스님은 개인 방사
  - 수업과 방사 겸용 큰방 중심, 삼장원 교수 스님 연구실, 회성당 대학원 스님, 설현당 화엄반, 금당 사교반, 청풍로 사집반과 치문반
  - 목욕 : 학인/대학원/개인 정통, 삭발일 음력 9일, 19일, 29일과 문수식발일<sup>16)</sup>
  - 정통 : 달의실/사워실/세탁실, 다각-빨래와 이불 건조대
  - 정랑(=화장실, 푸세식, 수세식: 좌변기, 양변기)
  - 문수선원에 찜질방, 악야계(휴게방, 객실, 차실), 전향각(노전체)

- 11) 아닌다 존자가 부처님께 시자로서 한 일은 7가지이다. ①세수 물 준비, 치아 닦는 치목 준비, ②있는 의자 준비, 밥을 쟁기고, 등을 마사지하고, 부채를 부치고 ③방을 청소하고, 가사를 수선하고 ④항상 필요시에 부처님을 도울 수 있도록 밤에는 가까이서 잠을 자고 ⑤부처님이 아프면 약을 구하고 ⑥부처님이 승원을 순방할 때 항상 동반하고 ⑦부처님의 메시지를 비구들이나 재가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12) 한 해에 4분이 열반에 드시는데, 사리불이 열반하고 2주 후 목갈라나가 열반하고 6개월 후 부처님께서 80세로 열반하시게 되는데,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보다 조금 먼저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사리불은 83세에, 목갈라나는 84세에, 파세나디 왕은 80세에, 부처님도 80세에 입적하신다.
- 13) 만약 비구가 목욕할 때 입는 옷(雨浴衣)을 만들에 길이는 부처님 손으로 다섯 뼘이고, 넓이는 두 뼘 반이다. 만약 지나치면 바일제니라. 비구가 옷을 만들 때에는 부처님 옷의 양으로 해야 하나니, 만약 지나치면 바일제니라. 부처님 옷의 양이란 길이는 부처님 손으로 아홉 뼘이고, 넓이는 여섯 뼘이다.
- 14) 손을 먼저 물그릇에 담그어 씻고, 차근차근 밥을 먹는데 모두 묵언하고 치다보거나 돌아보지 않고, 오직 밥그릇을 껴안고 밥 알 하나 훑리지 않고 먹었다고 한다.
- 15) 사문(沙門)의 머리카락은 최고 두 손가락 두께 이상 길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삭발을 해야 하는 데, 이는 '무명초無明草'를 깎아서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 16) 1월, 11월, 12월은 3일, 2월, 4월, 6월은 15일, 3월 14일, 5월 17일, 7월 8일, 8월 9일, 9월 9일, 10월 9일

2. 기타 – 승가대학 및 승가대학원, 각 학년별 내전 배우기<sup>17)</sup>
- 중국 청화대학, 일본 하나조노대학, 태국 마하촐라롱꼰대학, 국제참여불교연대 등과 교류
  - 삼장원 도서관과 전시실, 회성당 전산실, 선열당 강당 및 방송실, 후박 서점
  - 조사 스님들의 부도탑 9기와 탑비 6기, 장군평 다비장터 설치 / 법문상 설치, 삼성각, 조영당
  - 주요 시주는 운문사와 사리암 신도님과 즐업생 스님
  - 차고지, 밭과 원두막, 농기구실, 고추건조실, 촛광, 양진당(정인 숙소)

#### 4.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위의 도표를 통해서 비구 승가 기원정사와 사미니 강원 운문사는 시설 및 생활항목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음을 보았다. 천년의 시간 흐름에도 승원의 동질성은 수행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 준다. 이로써 라자까라마 비구니 승원도 기원정사처럼 부처님의 자취가 서려 있는 장소인 것을 견주어 알 수 있는 것이다.

고타미와 1,000명의 비구니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법문요청을 자주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셨고 또, 뛰어난 장로 비구들을 차례대로 비구니 승원에 보내서 법문하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난다가 장로의 법문을 듣고 500명의 비구니가 아라한과를 중득한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니를 가르치는 데는 난다가 장로가 으뜸’이라고 칭찬을 하셨다. 비구니 승원이 잘 유지 발전되도록 도움을 주던 아난다 비구도 있었다. 『대방편불보은경』 제5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아난다가 한 것이요, 여래가 한 것이 아니니, 아난다 때문에 여러 여인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니라. 고타미여, 미래 말세의 비구니와 여러 착한 여인들은 언제나 지극한 마음으로

아난다의 은혜를 생각하여야 하며 이름을 부르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친탄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리니, 만약 늘 할 수가 없으면, 밤낮으로 여섯 때만이라도 마음에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빔비사라 왕의 후궁이었던 케마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던 마음이 허망한 줄 알게 되어 출가하였다. 그녀는 파세나디 왕의 질문에 부처님과 동일한 내용의 설법을 해줄 만큼 지혜로웠으므로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한다면 비구니 케마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의 비구니 승기는 삼국시대(544)부터 시작되어 1,500년 동안 비교적 잘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 비구니 교단의 맥은 모두 고타미 비구니의 후예로서 높은 교육열과 엄격한 계율 수지 및 수행 정신에 입각하여 훌륭한 수행자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자수와 인수’라는 두 비구니가 사원을 건립하여 5,000여 명이 함께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 비구니의 수행은 한국불교 교단의 발전과 불교 문화의 한 토대가 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눈에 띄게 성장하여 오늘에 이른다.

운문사는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호거산에 자리한다. 운문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으로 활

17) ① 사미니과 : 『치문』 / 사집과 : 『도서』, 『서장』, 『대총상법문』 / 사교과 :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 대교과 : 『화엄경』 ② 대학원 연구과정 : 『법화삼부경』, 『남분열반경』, 『유마경』, 『정토삼부경』, 『미륵삼부경』, 『술몽쇄언』

용할 수 있는 자료는 『삼국유사』와 「호거산 운문사 사적」이다. 이 자료에는 창건부터 조선초기에 이르는 역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운문사를 대표 할 수 있는 초창기 고승은 원광국사, 보양국사, 원옹국사에서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를 지나 현재 운문사 회주이신 법계 명성 스님에 이른다. 근대 비구니 강원의 시작은 1958년 금강 스님이 통도사 강사 오해련 스님을 모시고 비구니 전문 강원을 개설한 아래 1987년 승가학원 명칭을 '운문사 승가대학'으로 고치고 명성 스님이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2023년 오늘날까지 2,200여 명이 넘는 승가대학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승가대학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미니 승가대학과 비구니 승가대학원이 있는 운문사는 '입지발원立志發願', '정진불퇴精進不退', '유통교해流通教海'를 학훈學調으로 도제 양성을 위한 승려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교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청담 큰스님, 자운 큰스님, 성철 큰스님, 운허 큰스님, 관웅 큰스님 등 여러 고승께서 앞을 내다보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법을 아끼지 않으시고 비구니 인재를 양성해주신 덕분이다.

세계여성불자협회 쏘모 스님은 한국의 여성불교가 세계 여성불교의 '햇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티베트 비구니 텐진 파모는 8,000여 수행자를 가진 한국 비구니계가 세계 비구니계의 모델이 될 만하다고 하였다. 대만, 인도, 스리랑카, 일본, 중국, 태국, 티베트 등 세계 비구니 역사는 전쟁, 문화, 경제 등 여러 측면의 난관 때문에 흥망성쇠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속형태를 바꾸어가고 있다. 다행히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환경은 안정적이어서 다른 나라의 여성 불자의 안전과 위상을 돋기 위하여 최근에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처님께

서 남겨 주신 음덕陰德<sup>18)</sup>과 다양한 선지식 스님들의 역할과 수많은 불자님의 원력으로 오늘이 있는 것이다.

한국 비구니 승가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시대마다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며 지금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세계 비구니 승가들도 주체적인 역량을 키워서 중생들의 햇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 〈참고문헌〉

- 「부처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일아, 2019년
-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원영, 2011년
- 「금강경 오가해」 무비 講, 1992년
- 「불교사전」 운허 용하, 2008년
- 「즉사이진」 명성 스님 법문집, 2019년
- 「운문사지」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2018년
- 동국 역경원(<http://www.tripitaka.or.kr>)

18)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복덕 2가지를 갖추셨으므로 양족존으로 불리운다. 당신이 누리셔야 할 복덕에서 20년은 중생들에게 회향하시고 육신을 벗으셨다. 수많은 불자는 부처님의 음덕으로 살고 있다.

## 겨울의 끝자락에 만난 선지식 - 청도 대감사 설우 스님

경문 / 4학년



선재동자는 남쪽으로 여행하며 53명의 선지식을 만나 법을 구한다. 학인 셋은 겨울의 한 끝자락에서, 선재동자처럼 청도군 청도읍 평양리 대감사로 향했다. 황매화가 피어 우리를 맞이하였고 나즈막이 깔끔하게 단장된 도량은 설우 스님 그대로를 보는 듯했다. 스님께서는 '관심일법觀心一法이 총섭제행總攝諸行, 즉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거두어 섭하는 것'이니 이 자리에서 잘 들으라고 하시며 운을 띄우셨다.

"강원에서는 노스님으로부터 이제 막 출가한 행자까지 함께 다 어우러져 살잖아, 그것이 법이에요. 그보다 더 수승한 일승법一乘法은 없어요. 화합하는 가운데서 모두가 스승으로 보이고 공경심이 거기서 스며 나오는 거야. 부처님이 따로 가르치신 게 있을까? 없어요. 지혜종자와 함께 자성이 본래 갖춘 공덕성功德性과 어우러지면서 여무는 거야. 이 생각이랄까 알음알이, 그 식심識心이

라는 게 위낙 신출귀몰한 놈이 되어가지고 도가 탁 열리고 깨쳐서 지혜가 확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놈이 고린 거를 전부 다 주워 모으는 거예요. 다생겁래多生劫來로 번뇌망상이라는 어리석은 기운이 삭 스며들면서 안개에 옷 젓는 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주인공 노릇’을 하는 거지.”

학인들에게 강원은 가장 수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에, 계속 강원생활에 의문을 품으며 3년이란 시간을 놓치고 산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러웠다. 신출귀몰한 놈에게 휘둘려 나로 착각하고, 오늘도 망령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본다. 주인공아!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 자성自性을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정견正見이 있어야 되겠제? 여러분이 선방에 가서 ‘요번 철에 용맹정진하면 로또처럼 탁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좌복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요에 고봉 스님이 세상에서 익혀 왔던 모든 어리석음, 번뇌는 저 삼천리 밖에다가 버려두고 좌복 위에 앉으라고 하셨잖아. 진성하겠다, 한소식 해야겠다,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히려 망상이 되는 거여.”

“그런 얘기는 익히 들어 익숙하긴 한데,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선방에 가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래도 첫째로 이걸 알아야지.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본래 다 성불했더라.’ 본래성불本來成佛이야. 죽순에 대나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다 있어요. 죽순은 꽈 찬거든. 텅 빈 대나무는 쉽게 말해서 진공묘유眞空妙有지. 생활 그대로가 수행이고 그대로 부처로서 사는 거야.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해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야 해.”

모든 것은 본래 부처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되새긴다. 『법화경』에는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이 등장한다.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하고 친단하였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나니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불경보살은 모든 이에게 불성佛性이 있으므로 그 누구도 가벼이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 진성眞性은 무염無染이다. 우리의 참 성품은 조금도 물들거나 업이 물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들으면 또 안 믿어지제? 우리가 미워하고 짐작하고 사랑하고 욕심내는 게 다 지금 내 현주소인데, 없다 하느냐? 연꽃은 말이지, 시궁창 같은 곳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데 단 한 번도 오염된 물을 받아들인 적이 없이요. 고 苦에 실체가 없는 줄 알면 無滅이 되는 거야. 꿈속에서 매일 두려움과 불안으로 헤매는데 누가 툭 차서 탁 깨어나 보니까 실체가 없잖아. 대승은 실체가 없는 본래성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은 무염이지.”

중국 당나라 때 신찬 선사의 계송偈頌이 떠오르는 대목이었다.

영광독로 灵光獨露 형탈근진 邪脫根塵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드러남에 근진根塵을 멀리 벗어났고,

체로진상 體露眞常 불구문자 不拘文字

본체가 그 진상眞常을 드러내니 문자文字에 아무 결림이 없다.

진성무염 眞性無染 본자원성 本自圓成

참된 성품은 물들음이 없어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졌거니,

단리망연 但離妄緣 즉여여불 卽如如佛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의면 그것이 곧 여여如如한 부처니라.

“세 번째는 무소득無所得이에요. 밖에서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반야심경에 보면 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무명無明, 노사老死, 고집멸도苦集滅道 전부 없다고 하지 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거든. 알음알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진성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와서 조작 부려서 만든 건 다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 진성의 지혜는 천지 무엇이 와도 무너뜨리지 못해. 본래 내 것이기 때문에. 본래 성불, 진성, 무념無念 그런 게 무소득이란 말이야.”

매일 예불하며 목청 높게 독송하는 반야심경의 내용을 알음알이로라도 알고 있는지 되새겨 본다. 무無! 있다고 착각하니 괴로움이 생기고 번뇌가 생긴다. 원리전도몽상遠離顛倒夢想. 우리는 헛된 생각, 헛된 꿈을 꾸며 이게 진실이라 믿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네 번째, 무생멸無生滅.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 어디로 갈까? 걱정하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당장 눈앞에 있는 부처님 경전 하나도 옳게 읽지도 않고 계으름 부리다가 죽어서 갈 때까지 그렇게 할 거냐 말이야. 내가 정말 열심히 정견을 가지고 잘 살면 그대로 죽음을 열어버리는, 초월하는 자리야. 이건 자꾸 해야 해요.”

다시 한번 더 정견, 정진을 강조하셨다.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본다면, 집착 · 욕심 · 이기심 · 분노 · 어리석음 · 계으름 등을 버리면 바로 볼 수 있는 견해가 생기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보현행원普賢行願이에요. 네 번째까지는 문수지혜文殊智慧, 문수의 진공眞空을 말하는 거야. 그 바탕에서 보살의 행원이 열린다 이 말이야. 보살행원이 잘 열려야 그 모든 생명들을 다 복되게 하고 부처님의 법대로 정법활동 포교활동을 하잖아요. 대승법의 요 다섯 가지를 자기가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명상이야. 이게 근본이 딱 서가 있는 사람이라야 조작을 안 부리고 귀신 노릇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눈이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견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정법활동이든 다른 수행을 하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기 점검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식을 찾아뵙고 자기 공부를 항상 점검받아야 해. 그리고 눈이 눈동자를 볼 수 없다 카는 건, 뭐 할라고 불라 카노? 거기서 조작이 들어가는 거야. 실상은 보는 것이 아니야, 눈뜨고 귀신 보는 소리를 해야 한단 말이야.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견문이 생기고, 찾아간 선지식이 어리석음을 자꾸자꾸 털어 주는 거야. 선지식이 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강원 생활이 보현행임을 알지 못했다. 예불로 항상 부처님을 예배, 공경, 찬탄하고 108배로 참회하며, 부처님의 설법인 경을 보고 읽으며 생활하고 있다. 선지식을 찾아 떠난 길의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 십대원十大願을 들은 선재동자처럼,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만났다.

“그래 알았으면 됐다. 이제 고마하자” 라며 자리를 마무리해 주신 스님의 목소리엔 경학과 실참을 두루 겸비한 깊음과 편안함, 부드러움이 있었다. 아직은 풋내기인 학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여러 번 들어도 부족할 스님의 설법은 조금은 짧은 듯 아쉬웠다. 우리는 오래 묵혀 부드러워진 귀한 차, 노마나를 대접받았다. 귀한 차만큼 귀한 선지식을 만나  
우리도 선재동자처럼 부처님의 뒤를 잇는 훌륭한 보배가 되기를 바란다.

신심信心으로써 욕락欲樂을 버리고 일찍 발심發心  
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  
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孤高하게 걸어  
서 가라.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지계 제일로 알려진 우바리  
존자의 계송이다. 선재동자의 구도의 길에 서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 오직 모를 뿐

덕유 / 2학년

서울에서 청도까지 5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온 곳이 바로 운문사였다. 내리자마자 조용한 공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건 산, 과연 내가 이런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을 품고 들어온 강원. 이제 사집반이 되어, 그때부터 시작된 치문반으로서의 1년을 돌아보는 일기를 적어 볼까 한다.

치문 1년 동안 교수 스님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오직 모를 뿐’ . 송산 큰스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모든 학년들이 다 처음 사는데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저 모를 뿐.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냥 하면 돼요.”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이 있던 나는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매일 예불을 하면서 ‘부처님, 제가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해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하니 강원 생활에 점차 적용할 수 있었다. 그 까닭일까, 봄이 지나고 조금 더 성장한 여름이 되었다.

운문사의 여름은 습하고 덥지만 물놀이를 할 때면 극락이 따로 없다. 하루는 물놀이를 하며 물과 물아 일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안경이 물에 떠내려간 것이었다. 안경이 없어진 삶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며칠을 숙제도 못 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어느 순간부터 도반 스님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반들은 내 눈이 된 것처럼 친절히 도와 줬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나를 낳은 것은 부모요, 나를 키우는 것은 도반이구나. 불보살님들이 나에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던 삶이 부끄럽게만 여겨졌다. 도반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일깨워 주고,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다.

치문의 가을은 마치 곡식처럼 나의 마음도 익어가는 시간이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해 동안 치르지 못했던 행사를 상반 스님들의 인솔하에 배워가면서 내 육근도 같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날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며 혼란스러웠지만, 그때마다 주력을 하면서 마음을 다

집았다. 특히 월동준비로 부반장팀에 합류해 김장을 준비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하루는 후원에서 손이 시리도록 열심히 셋이도 줄어들지 않는 청각을 보며 번뇌가 올라왔다. 그때 도반 스님이 말했다. “번뇌가 그렇듯 일을 끝낼 생각만 하면 힘들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이 말에 힘을 얻어 가벼운 마음으로 울력을 마칠 수 있었고, 김장 당일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일찍 끝마칠 수 있었다.

운문사의 겨울은 정말로 춥고 정말로 따뜻했다. 특히 겨울방학 동안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염불도 익히고, 법고 연습도 하며 알차게 보내고 싶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전각에서 부전도 살고, 독송에 입선에, 또 사리암에 올라가 소임을 사는 등 정말로 하루하루가 유명인사보다 더 바쁘고 알차게 지나갔다. 바빴던 도반들과 함께 ‘독수리 9형제’라는 별명도 얻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바빠 도반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방학을 점차 보내다 보니 도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역시 도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교수 스님께서는 “치문반 때 독송 소리가 아니네? 스님들이 방학을 잘 살았나 봐요.”라고 하시며 흐뭇해하셨다. 지금도 다사다난한 겨울방학을 같이 보내 준 도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육근이연 행주적묵 六根怡然 行住寂默  
일심불생 만법구식 一心不生 萬法俱息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위산대원선사경책>의 이 마지막 구절이 생각난다. 육근이 고요하면 하는 일마다 고요하고 한 마음 나지 않으면 모든 법 저절로 쉬어진다는 말로, 강원에서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호법신장님들이 지켜보시고 보호해주시는 청정 운문사 도량에서 마지막 까지 잘 회향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곳곳에서 법려法侶가 되기를 발원한다. ☽



▶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순례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59기 졸업생 스님들, 구족계 수지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운문인에게 태블릿 PC는 필수랍니다



회주 스님, 턱발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수 스님 + 화엄반 스님들 + 행자님 = ❤



원족遺足 - 징검다리가 명당일세



신중기도 회향 후 화재 예방을 위해 도량 구석구석 소금을 뿌려요



대웅전을 나와  
그대로 꽃길을  
걷는 자네이란

## 봄꽃 깃든 도량, 수행의 향기

편집부



꽃이 피니 찍을 수밖에요



화장장업세계가  
바로 여기랍니다



'서-기-모니불-'에  
맞춰 서문시장을  
수놓은 탁발 행렬

## 한국불교를 이끄는 원동력! 붓다의 딸들

정운



현대 서양 사회에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라는 용어가 있다. 즉 여자는 직장에서 고위급에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양성평등이 완전하지 않음을 뜻한다. 근자에 우리나라 공직자 남녀 비율을 조사했는데,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부서가 있으며, 그나마 법조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겨우 두 자릿수를 넘었다. 우리나라 여자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수년 전 어느 방송인이 잡지 칼럼에서 '여성주의(페미니즘)가 이슬람 과격주의 테러집단(IS)보다 위험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권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종교 여성 성직자들의 지위는 어떠한가? 누구나 다 안다. 여성 성직자들은 남성 성직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낮다는 것을. 그러면 불교계는 어떤가? 평등한가? 단연컨대 오롯이 세계 종교 가운데 불교의 비구니 스님(한국과 대만)들은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불 평등한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불교 본연의 사상! 부처님은 여성 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비구니를 왜 승가에 받아들였는가?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중일아함』 「비구니품比丘尼品」에 뛰어난 비구니 제자에 대해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전한다.

비구들이여! 나의 여성 성문(女聲聞, sāvikā) 비구니 중에서 가장 일찍 출가해 도를 배워 존경받는 이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비구니요, 지혜에 뛰어난 이는 케마 비구니요, 신족 통을 갖추어 모든 신들을 감동시키는 이는 웃빨라완나 비구니요, 계율에 뛰어난 이는 빠따짜라 비구니요, 설법에 뛰어난 이는 담마딘나 비구니요, 선정에 뛰어난 이는 난다 비구니이다. 정진력을 갖춘 이는 소나 비구니요, 천안통을 갖춘 이는 사끌라 비구니요, 침혜제일捷慧第一(가장 날카로운 직관력을 가짐)은 빛다 꾼달라께사이다. 숙명통에 뛰어난 이는 빛다 까펠라니 비구니이며, 대신통력에 뛰어난 이는 빛다 깃짜나 비구니요, 조의제일組衣第一(누더기 가사를 입고 두타행을 수행)은 끼사고파미 비구니요, 믿음을 실현한 이는 시갈라마파 비구니이니라.

이렇게 초기불교 경전에 정각을 이룬 비구니가 등장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와 동등하게 비구니의 근기를 인정해 주셨다는 점이다. 곧 부처님 재세시 뛰어난 10대 비구 제자가 있었다면, 10대 비구니도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 단적인 예가 빨리 삼장三藏 중 소부小部경전 (Khuddaka-nikāya) 15경에 포함된 『장로니계(Therigātha)』다. 『장로계』가 비구 깨달음의 계송이라면, 『장로니계』는 비구니 깨달음의 계송이다. 초기불교시대에는 비구니도 비구와 동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수행자로서 존중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023 세계 비구니 연대의식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부처님께서는 종종 사리불이나 목련 등 제자를 부를 때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비구니에게도 그러했다. 부처님은 케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딸 케마는 지혜가 매우 깊고 뛰어나다. 나는 케마를 비구니 가운데 ‘지혜제일’이라고 부른다.” 사리불존자가 지혜제일이듯이 케마는 비구니 가운데 지혜제일이다. 또한 비구니 해공제일인 와지라를 부를 때, 부처님께서는 ‘나의 딸, 와지라’라고 하셨다.

그러면 제가 여성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정각을 이룬 비구니 이외에도 깨달음을 얻은 여성 제가신자들이 있다. 대체로 제가 여성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승가를 도왔다. 『증일아함』 3권 「청신녀품清信女品」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내 제자 중에 첫째 우바이로서 깨달은 이는 난타와 난타바라 우바이요, 지혜가 제일가는 이는 쿠주타라 우바이요, 좌선하기 좋아하는 이는 바로 슬피야 우바이요, 지혜가 밝은 이는 비부 우바이요, 설법을 잘하는 이는 양갈사 우바이요, 경전 뜻을 잘 연설하는 이는 발타바라수염마 우바이요, 외도를 항복받는 이는 바로 바수타 우바이요, 음성이 맑고 트인 이는 무우 우바이요, 의론에 뛰어난 이는 바라타 우바이요,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이는 수두 우바이다.



세계의 여성 출가수행자들

이어서 「청신녀품」에는 앞에 서술한 우바이 이외에도 12명의 우바이를 더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부처님께서는 비구니나 여성을 하열한 존재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불교에서는 여성이 부정적이고, 하열한 이미지로 남아 있으며, 차별이 있는가? 실은 부파불교 시대로 접이들면서 여성들의 하열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곧 비구니만의 팔경계·변성성불론·여인오장설 등이다.

여인오장설 女人五障說이란 여인은 다섯 부류, 즉 제석천·범천·마왕·전륜성왕·부처가 될 수 없다는 설이다. 이 내용은 『법화경』·『제바달다 품』에 용녀가 성불하게 되자, 사리불 존자가 “여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거늘 어찌해서 여자 몸으로 성불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등장한다. 『법화경』은 대승불교 경전으로, 그 이전 부파불교에서 여인을 하열하게 보고 있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물론 경전 내용 자체는 여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곧 여인오장설은 대승 이전 부파불교 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무량수경』 법장비구의 35원 내용에도 여인에 대한 차별이 내포되어 있다.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비구는 이렇게 서원을 세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어떤 여인이든지 제 이름을 듣고 환희심을 내며, 보리심 발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런데 혹 여인들 가운데 죽어서 다음 생에 또 여인 몸을 받는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곧 여인의 몸으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거나 성불하기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변성성불론變性成佛論은 여인의 몸으로 성불할 수 없으니 남자 몸으로 변신해야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유마경』 「관중생품觀衆生品」에 사리불 존자는 천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그대가 성불한다고 하면, 당연히 여인의 몸을 바꿔야 하는데, 왜 바꾸지 않는가?”『유마경』의 변성성불론은 여인오장설에 비해 여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인오장설은 대승불교 경전 곳곳에 나타나 있다. 대승 경전이 한 시대,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대승으로 분류되는 경전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점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하자면, 무파불교 시대에는 여인에 대한 불평등이 있었다. 그런데 대승불교로 접어들면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는 사상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부처님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봤는데, 당시 여성 출가자만이 지켜야 하는 팔경계八敬戒가 등장한 것이고, 대승불교에서 여성 차별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마하파자파티가 처음 출가코자 했을 때, 두 번이나 반대하셨다. 몇 년이 지나 마하파자파티가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도 부처님은 거절하셨다. 마침 곁에 있던 아난 존자가 왜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한데, 모친이자 이모인 그녀를 승단에 받아들이지 않냐고 항변하자 부처님께서는 팔경계八敬戒를 제시하며, 그녀를 승가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여성이 출가하는 데 사회와 교단에서 제약이 있었다.

첫째, 인도 사회 특성상 여인이 출가해 유행遊行(나무 밑에서 자고 길에서 생활)하는 일이 용이치 않았다. 둘째, 여성이 교단에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있던 비구들의 수행에 방해될 요소가 있었다. 여러 정황상 여성이 출가해 수행하기에는 환경이 적합하지 못했다.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의 본성 차원에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고 대우를 해주었다. 부처님 열반 이후 시작된 부파불교 시대에 여성의 하열함이 등장했을 거라고 본다. 게다가 남방불교에서는



세계의 여성 재가불자들

비구니 교단이 사라지면서 비구니 권리를 주장 혹은 항의할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시대 한국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승만경』의 승만부인에 빗대어 구도를 짜보자. 누구나 알 듯이 『승만경』은 여성 재가자가 설한 경전이다. 승만부인이 부처님으로부터 보광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고 당당하게 법을 설한다. 경전의 제목이 『승만사자후일승대방광방편경勝鬘獅子吼一乘大方廣方便經』이다. '사자후'란 사자가 우렁찬 소리를 내어 뜻 동물들을 제압하듯 부처님의 설법을 지칭하는데, 승만의 설법을 사자후에 비유하고 있음은 곧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설법의 능력자요, 주체적 존재임을 설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하고픈 말은 바로 이점이다. 승만부인처럼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비구니 스님들도 시공간을 떠나 부처님의 제자이다. 필자가 외국에서도 경험했지만, 비구니 스님들이 소극적이다. 특히 중국 사찰을 순례할 때 비구니 대중처소인데도 여러 면에서 개방적이지 못함을 느꼈다. 현실 문제에만 얹매여 있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얼마든지 비구니 스님들도 상근기로서 수행하며, 여러 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다.

비구니 스님들! 여성 불자님들! 그대는 '붓다의 딸'로서 한국불교를 이끄는 원동력임을 절대 잊지 말자. ④



정운 스님

정운 스님은 운문사 25회 졸업생이다. 동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2023년 1월 운문사 명성 회주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BBS불교방송에서 경을 강의하며, 경전 문자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경전숲길』,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 『인물로 보는 중국 선사상사』 등 20권의 책과 37편의 논문이 있다.



## 운문 도량에서 참된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1학년 학인들



운문사에 들어오기 전 사형 스님들로부터 얘기도 많이 전해 듣고 자료들을 찾아보아서 오기 전 설례기도,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운문사 도량에 들어왔을 때, 일찍이 편 매화꽃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 모습과 향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운문사 도량의 품에 안겨 대중생활의 습을 익히고, 예불을 올리고, 염불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오롯이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시간이 귀하기만 합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몸과 마음이 긴장되지만, 예불 전 앉아 있는 짧은 시간에 호흡하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운문사의 맑은 기운이 온몸으로 들어오는 듯하여 금새 맑은 기운과 산뜻한 기분으로 몸과 마음이 충전됩니다. 새삼 수십 년간 학인들을 훌륭한 수행자로 만들어 온 큰 도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주 스님, 교수 스님, 상반 스님, 도반 스님 모두 세상의 빛이 되는 수행자, 세상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 현소

최고의 비구니 교육도량이라는 호거산 운문사에 입방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사숙님들께서 걱정어린 시선으로 떨구어주신 금당에 들어서자 만나기를 고대했던 도반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이름표만 달기를 몇 시간... 여러 종류의 습의가 기억할 틈도 없이 지나가고 저녁예불을 하러 불이문을 지나 법당에 착석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듣는 사물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법고 소리는 <라이온킹>에서 물소 뛰는 소리 같고 목어는 고향 바다의 파도 소리 같고, 운판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좌복마저 진동하는 듯한 그 소리에 저절로 전율이 일었습니다. 선방과 강원 사이에서 고민하다 선택한 운문사. 댕, 댕, 댕, 하는 대종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차원에서의 시작 앞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기를, 이곳에서의 시간이 헛되거나 후회스럽지 않게 매 순간 깨어 있고 최선을 다하기를’ 하고 다짐했습니다. – 해묵



운문사에 학인이 되기 위해 들어온 첫날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든 곳, 정든 사람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스님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머리를 깎은 지는 1년 반이 조금 넘었지만, 여전히 마을의 삶이 익숙한 몸과 마음이었기에 강원의 엄격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지례 겁을 먹기도 했고요.

고민 반 설렘 반, 여러 가지 생각을 안고 방부를 들인 날, 재미있게도 금당에 모인 도반들과 책통에 바느질을 했던 기억이 남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어색함 없이 자연스레 뭉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실을 퀘던 것이 제게는 알게 모르게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쁜 스케줄이 산 넘어 산이고 서툴고 어색해 모든 것이 머트립지만 그래도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치문반 도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의 강원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반들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운문사에 봄이 찾아오고 있어서 그런지 처음의 떨리고 긴장되던 마음이 조금은 유해진 듯도 합니다. 금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매화나무에 올망졸망 작은 봉오리들이 생기더니, 이제는 만개해

서 새벽예불을 갈 때 보면 꼭 별들이 한가득 나무에 앉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엔 화엄반 스님들께서 보리수 수목원을 소개해 주셨는데, 꽃이 편 봄에는 정말 극락세계 같다고 하셔서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이제 겨우 학인으로서, 제대로 된 스님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고, 그 장소가 운문사여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보살님들과 여러 어른 스님들과 강사 스님들, 상반 스님들, 그리고 치문반 도반들의 도움이 있다면 강원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명주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렸던 보름 여일 간의 시간이 지났다. 하루하루는 정말 빠르게 흐르는 듯한데 강원 졸업을 생각하면 4년 뒤가 언제쯤일지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 행자생활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6개월이 금방 지나가겠지’ 했었는데, 확실히 4년이란 세월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다지 고민 걱정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강원에 들어오고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도반들이 생기다 보니 책임감도 더 커지고 부반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되어 부담

감도 커졌다. 운문사라는 공간은 그대로인데 내가 느끼는 감정의 종류와 고민거리가 이렇게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에 역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언젠가는 이 생활이 익숙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 하루를 쓸데없는 잡념으로 낭비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야겠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관, 맛있는 밥, 서로 배려하는 도반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상반 스님들까지 내가 가진 상황에서 만족하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필요했었다는 것을 이즈음에서야 깨닫게 된다. – 정우 45





## 조금씩 문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세상

편집부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외지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왔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 대 학생들이 오랜 공백을 뒤로하고 다시 운문사를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 주어진 시간은 겨우 하루로 짧았지만, 회주 스님께 인사를 드린 뒤 운문사 도량 안내, 사리암 참배, 차 명상, 학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저녁예불로 알차게 짜여진 일정을 소화하는 학생들은 활기가 넘쳤다.

간단하게 운문사의 전각과 학년별 처소를 둘러보고 사리암으로 출발하는 길은 햅살이 가득했다. 학생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에 숨을 몰아쉬면서도 내내 열파 성을 다해 질문을 던졌다. 불이 不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모든 애착은 해로운 것인지, 사람은 모두가 출가자가 되어야 하는지, 출가 생활의 이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참배를 마친 학생들은 곧 맛있는 점심에 감탄하며 몇 번이고 접시를 채웠다. 다시 걸어서 운문사로 돌아오는 길은 경쾌한 물소리와 향긋한 소나무 내음이 함께했다.

잠깐의 휴식 후 청풍교 큰방에 초대받은 학생들은 연꽃을 동동 띠워 마치 그림에서 건진 듯 아름다운 차를 대접받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적재적소에서 영어가 능통한 학인 스님들이 활약해 준 덕분에 화기애애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드디어 한꺼번에 많은 스님들을 만나게 된 학생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우리가 출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이어 강사 스님께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냐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손들이 번쩍 올라가며 다음의 질문이 이어졌다.

‘업이란 무엇인가? 선업과 악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불교는 무아無我를 전제로 하는데, 그렇다면 윤회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곧바로 불교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들이 반가웠다. 그 답을 찾는 순간 윤회는 끝나며, ‘나’는 죽으면 사라지지만 엄은 남는다는 설명에 ‘내가 떠난 자리에도 행동의 결과가 남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군요’라고 대답하는 선근이 깊은 학생도 있었다.

종각에서 사물을 연주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눈을 빛내며 저녁에 불에 참석하던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전각에 들어갈 때 마치 한국의 불자님들처럼 맷돌 밑을 빙 둘러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 놓던 모습도, 헤어지기 전 사중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에 일일이 놀라워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의 한국불교와의 인연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며, 한 학생의 소감을 덧붙인다.

운문사에서 가졌던 차담은 한국 여행 일정을 통틀어 가장 뜻깊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나같이 겸손하고 즐겁고 친절한 스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예불 때는 스님들의 염불에 완전히 몰입하여 정신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났을 만큼 염불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운문사에서의 기억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보다 자비롭고 깨어 있는, 정돈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Suhan Kacholia 학생



## 여의원만如意圓滿

### - 모든 것이 뜻대로 원만하게

영원 / 4학년

어렸을 때 절에 가면 '복을 많이 지으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절에서 자꾸 복을 지으라고 하지? 불교는 기복신앙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의 의미도 잘 몰랐고 복은 좋은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느낌만 있었습니다. 출가 후 경전공부를 하다 보니 왜 복을 많이 쌓아야 하는지, 복을 쌓으면 뭐가 좋은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철부터 초겨울에 이르기까지 오백전 부처님과 나한님들께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특히 오백전 백일기도에 들어가고부터는 함께 꾸준히 기도를 올리시던 불자님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먼 거리를 오셔서 오롯이 집중하며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의 모습은 제 신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경을 하면 복이 생깁니다. 전각에 계시는 부처님 말고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똑같이 존경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복은 모든 것이 뜻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자님들은 복덕이 많으면 병이 빨리 낫고 장수하며, 가족이 화목해지고 직장 일도 잘 풀리며 학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도 복이 많으면 발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강력해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을 널리 원만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보리수 아래서 성불할 때 수천만억의 마군이 방해했지만, 복력의 힘으로 마군을 항복받았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합경』 「호심품」에서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것은 뛰어난 복력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대지도론』 제26권에는 필사적으로 정진하다가 눈이 먼 아나을 존자를 위하여 바늘귀에 실을 끼어주려 제일 먼저 달려가신 부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을 존자가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복을 지으시는지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대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 복을 많이 쌓긴 하였다.  
선근이 깊고 복이 많은 중생은 나를 보기만 하여도 교화가 되지만,  
복이 없는 중생까지도 보듬으려면 그만큼의 복이 있어야 하느니라.

왜 복을 짓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도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량한 복을 구족하신 부처님께 의지하여 복을 짓는다면 부처님의 복덕에 힘입어 그 복이 무량무변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복력만으로는 성취하지 못하는 발원을 부처님의 복력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쥐가 황소에게 몸을 의탁하여 황소처럼 빨리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나 혼자만의, 내 가족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이를 위한 행복. 모든 이가 불법과 인연이 되어 보리심을 발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한다면 그 발원하는 것이 또 복이 되어 나와 내 주변의 행복은 이미 자연스레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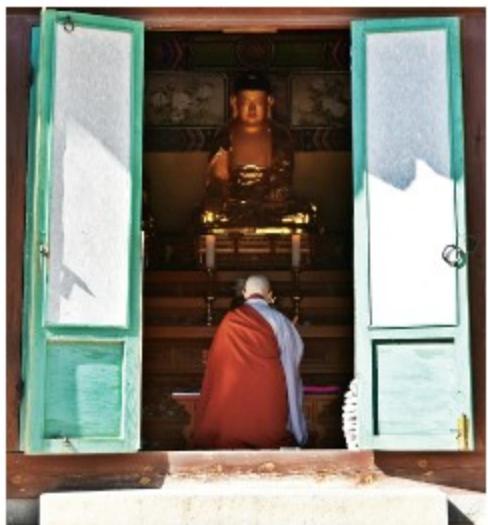
저는 작년 오백전 부전 소임을 살면서 매일 조식으로 부처님과 오백 나한님들께 예경을 올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정말 진실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마음의 바탕을 깨끗이 닦기 위해 참회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회한 그 자리에 서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을 했습니다.

제가 세세생생 탐진치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왔던 모든 잘못을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운문사의 모든 대중 스님들께서 언제 어디서 수행정진을 하시든지 항상 선지식과 좋은 도반과 함께하여 삿된 길로 빠지지 않고 무상 정등정각을 이루기를 발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불법과 인연되어 보리심을 발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참회와 발원으로 200일 가까이 기도한 덕분에, 뜻한 대로 원만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서도 올해 기도에 동참하시어 큰 서원을 세우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



## 내 꿈은 진정한 행복 찾기

보선 / 4학년

안녕하십니까? 대교반 보선입니다. 이 법문의 대상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20~30대 청년들로, 현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취업시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진정한 꿈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법문을 들으시는 동안 대중 스님께서는 청년 꿈 콘서트에 참여하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꿈을 꾸고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들로부터 “넌 꿈이 뭐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는 질문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꿈이 무엇이었나요?

저도 어렸을 적엔 프로농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비록 키가 작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즐겁게 농구 코트를 달렸던 기억이 남습니다. 중학교 때는 일제강점기 때 활약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삼일절 노래를 열심히 열창하고 꾀끓는 애국정신을 불태워 애국자가 되겠다고 다짐도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실현하고 싶은 것으로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그림일기로 그려보기도 했고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어내었던, 거창하기도 하고 사소하기도 했던 다양한 꿈들을 꾸며 살아 왔었죠.

청년기에 제 꿈은 팔도를 누비던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세계를 유랑하는 여행 작

가였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위치, 경제적 여유, 안정적인 직장 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취업 준비생들도 '꿈'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아이들에게 꿈을 일찍 정하게 하고 경제적인 목격과 안정적인 직업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사회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꿈을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어떤 것과 동일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021년 전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유일하게 한국만이 물질적 풍요를 제일의 가치로 두었고 건강, 가족, 일반적 만족감, 사회활동 및 자유 순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또 2022년 매경이코노미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돈, 가족, 우정, 사랑, 명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질의 풍요와 우리가 꿈꾸던 행복이 비례할까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SDSN)는 '2022 세계 행복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경제규모가 2021년에는 세계 10위에 올랐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보다 높았음에도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이며, 자살자 수도 10만명 중 28.4명으로 가장 높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 사회는 비교와 경쟁심으로 끊임없이 욕망의 충족에 집착하는 세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이라는 앞선 세대에게 교육받고 적응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일차원적인 사람들이 남의 시선과 비교를 통해 만들어낸 공식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현실 앞에서 진정한 꿈의 의미는 퇴색되고 물질의 풍요와 행복의 척도가 비례한다는 착각을 하고 맙니다. 마치 속 빈 강정처럼, 보여지는 삶에서만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꿈은 진정한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풍요를 갈구하는 욕망 자체가 허상이고 불건전한 것임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불설비유경」에 나오는 우리의 삶을 묘사한 '안수정등岸樹井藤'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망망한 평야에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뒤에서 무서운 코끼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피해 정신없이 달아나다 보니 우물 속에 등나무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등나무를 잡고 우물을 속으로 몸을 괴합니다. 안심하고 있는데 아래를 보니 우물 밑에는 독룡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중간에는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불잡고 있는 등나무 줄기를 흰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때 등나무에 달린 벌집 속에서 꿀이 똑똑 떨어져 입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꿀물을 받아먹는 동안에 자기의 위태로운 처지도 모두 잊고 황홀경에 도취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당장 입에 떨어지는 달콤한 꿀 한 방울 때문에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이 꿀은 바로 우리가 갈구하는 지위, 명예, 부, 욕망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가 전 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군장교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2%에 속한다는 명예가 더 멋졌고, 진급을 거듭할수록 부러움 섞인 남들의 시선을 받았음은 물론 이거니와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나를 내세울 수 있었기에 제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초심보다는 남들의 시선에 맞춘 명예욕이 더없이 커져만 갔고, 적군이 아닌 주변 동료들과의 경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은 저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지위나 명예 부 등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에 매료되어 모든 것은 항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얻어낸 진급과 경력은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였고 헛헛한 마음은 더해만 갔습니다. 더욱이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진급에서 누락되었을 때는 공든 탑이 무너진 듯 행복도 겉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꿈을 꾸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 일 것입니다. 탐욕으로 세워진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란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더이상 명예를 좇는 꿈을 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중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찰에 머무르며 스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가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는 아직도 가끔 속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 도반들과의 갈등, 때론 승가에서 명예와 물질적 풍요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 출가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 가신 부처님의 일생과 그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서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뚜렷해졌습니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금강경』에서는 유위법, 즉 인간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욕망과 물질적 가치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실체가 없이 텅 빈 허망한 것이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변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꿈 같고 환상과 같은 물질적 풍요를 쫓는 행복보다는 내면의 수행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면 누구나 부처님과 같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성장 시대에 태어나 경기 침체기의 취업난을 몸으로 겪고 있는 MZ세대인 여러분들은 물질적 보상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소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원 낭비나 생명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착한 소비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물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는 않나요?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살 만합니다. 하지만 항상 때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는 노력보다는 내면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근본적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면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영원할 것이라 믿는 물질이 언젠가는 혀망하게 사라질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탐욕이 자리잡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탐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나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미래의 걱정과 불안 속에서 나 자신



에게 위로하며 끝까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아함경』의 「왕상용품 사주경」에서 부처님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까지 집착하는 중생의 모습을 보시고 계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묘한 보배 비처럼 내려 주었건만 욕심 많은 자는 만족함이 없구나. 욕심이란 괴로움만 있을 뿐, 즐거움은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리.

물질이 득세하는 현상계의 삶을 사는 중생이 욕심과 집착을 완전히 여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처럼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은 물질적 허상으로 얻은 쾌락을 행복이라 착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찾아 꿈을 이룰 것입니다.

이 콘서트에 참여한 젊은이들에게, 종교활동이 아니어도 좋으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줄이고, 생활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기관이 안정되고, 총명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것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해 낼 것입니다. 모두 진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바르게 보고 실천하여 물질적 풍요를 행복이라 여기는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염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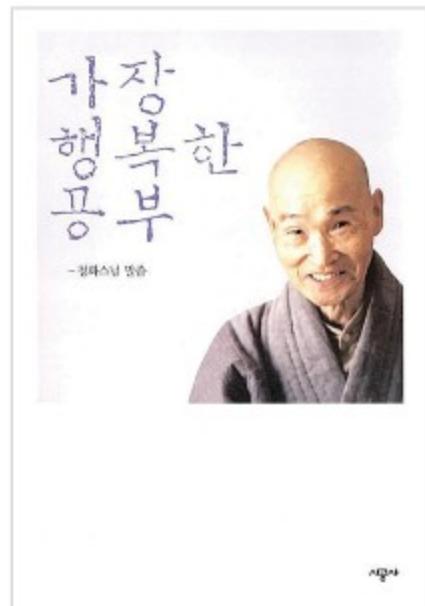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



4학년 원경

## 『가장 행복한 공부』 - 청화 스님 말씀

도현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어느덧 산천초목과 꽃들은 각자의 충만한 빛을  
발산하며 도량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온갖 새들은  
경쾌한 지지굽으로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봄!

입적하신 청화 큰스님의 「가장 행복한 공부」라  
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평생을 철저한 참선으로  
선법 수행체계를 확립한 대표적인 선승禪僧이신 청  
화 큰스님의 말씀을 엮은 책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  
자 과학인 불법의 참된 의미와 불교 전반에 대한 주  
옥같은 법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 도량에도 본래 가득 차 있는 밝은 빛이 있  
는 그대로 환히 드러나는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봅  
니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법  
문은 주문으로 가는 문이나, 염불로 가는 문이나, 경  
경을 보는 문이나 다 문입니다. 심지어 복승아꽃을 보고도 깨닫고, 길을 가다가 맑은 물을 보고 깨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불이나 경론經論이 참선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마음이 상대 유한적  
인 상에 걸리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견을 갖는다면 어떠한 공부나 다 참선일 수 있습  
니다. 하나님을 부르나 알라신을 부르나 다 참선입니다.

청화 큰스님의 선교禪敎 일치사상과 종교 회통사상을 볼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조사선의 평상  
심시도平常心是道, 즉 심시불即心是佛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긴 하나, 큰스님의 참선에 대한 말  
씀은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견을 갖는다면 어떠한 공부를 하든 다 참선이라니. 참선수  
행이 한결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선방에 앉아서만 참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일념으로 부처님(생명의 실상자리)을 놓치지 않는다면 참선이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참선의 개념을 넓게 열어 주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이 있을 것 같던 참선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고 누구나 참선 수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참선 공부는 가장 행복한 공부입니다. 어째서 행복한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참선을 잘 하면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날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있다는 병, 내가 있다는 병, 무엇인가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병인 무명無明병! 큰스님께서는 이 병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다스려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병으로 보셨습니다. 있다는 병을 치우지 못하면 참다운 불자가 못 되고, 따라서 참다운 참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명은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우주 전반에 걸쳐서 갈등과 불화, 여러 가지 불평등, 재앙 등의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육안肉眼인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상상을 실상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려면 '이 세상에 진여불성 아닌 것이 없다'는 정견正見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의 성품인 진여불성 즉 생명의 형상화이며, 세상 모든 것은 다 부처라는 바른 견해로 우리 사고의 패턴,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로 보면 고통을 여의고 위 없는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좋은 해, 날마다 좋은 날, 때마다 좋은 때!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문 책은 은사 스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접하게 되었는데, 읽으면서도 소장해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습득하고 수행하여 중득해야겠다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고구정녕한 말씀으로 '가장 행복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청화 큰스님의 자비하신 마음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분들이 이『가장 행복한 공부』를 통해 반야바라밀을 중득하고, 참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 안심입명安心立命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_0\_※



청화 큰스님 글씨  
'나루아미타불'

## 승가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고小考

스님들의 유튜브 채널,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하게 영상물을 감상하는 입장에 머무르기보다는 만드는 입장에 대한 고찰과 검토가 필요하다. 영상 제작을 수행의 한 방면으로서 살펴보도록 하자.



실로 영상이 범람하는 시대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장래희망 조사 결과 유튜버가 1위로 등극할 정도며, 생활상식이나 상품 리뷰 등 가장 단순한 정보조차 문자보다는 영상으로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접근성 차원에서 영상이 문자를 앞세게 된 현상은 우리가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이 이미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오래도록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어 자체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 이는 한편으로 다양한 집단과 공동체에 일종의 기대치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간에 비교적 덜 알려진 분야와 집단을 다른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불교계 전반은 물론 승가에도 적용된다. 물론 이미 TV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불교 방송사, 유튜브에서 독보적인 콘텐츠로 입지를 굳혀온 '스타 스님'들이 대표주자로 활약 중이다.

그러나 어떤 현상에든 명암이 따르는 법이다. 특히 스님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견이 분분해 왔다. 승려의 신분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출가수행자가 유명세와 광고 수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부터 공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인신공격에 이르기까지, 영상제작을 꿈꾸는 스님이라면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센 팔풍八風의 경계에 나아가야 한다.

만약 스님들 중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선 관점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좋다. 불교 콘텐츠의 제작 목적과 효용, 과급력 등

을 거론하며 그 의의를 포교의 틀 안에서만 찾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이다. 수행자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수행임을 명심한다면 출가자의 영상 제작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다.

승가에서 자체 제작하는 영상은 수행공동체의 삶의 현장을 담아내고, 그럼으로써 구성원과 재가자 모두를 감화하는 승가의 전통적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 이러한 영상의 가치는 탁월한 기획과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촬영하는 순간부터 명백해진다. 승가 구성원들이 웃는 얼굴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현장이라면,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 이심전심의 감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세간에 공유하며 시작되는 감화의 물결은 다만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상 제작은 또한 대중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 준다. 영상은 때와 장소, 사람, 소소한 사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의 반연을 통해서만 완성할 수 있다. 제작자와 출연자의 마음가짐 또한 결과물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드러난다. 다양한 구성요소를 조절하며 서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하며, 모든 과정은 이를 재차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수행자는 영상을 제작하며 자신이 속한 처소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인터넷 공간과 공동 의식의 지평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광범위한 대중생활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의 일상에 별것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하다 할 것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절집의 일상을 담은 영상은 가장 친근한 공양이자 보시가, 수행이 된다.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좋다. 수행의 순간순간을 담아내고 그것을 공유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을 수행의 방편으로 접근해 봄이 어떨까? 그 과정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부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불교계에 저마다의 개성이 자연스레 드러나는 다양한 영상 채널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욱 비옥한 수행의 생태계가 자리 잡기를 기다린다.<sup>51</sup>

## 운문소식

- 3월 1일 청풍료에서 봄철 개학공사 및 신입생 방부, 대웅전에서 신중기도 임재가 있었습니다.
- 3월 3일 신중기도 회향 및 소금 물기가 있었습니다.
- 3월 8일 미국 조지아대(University of Georgia, USA)에서 학생 20명의 운문사 탐방이 있었습니다.
- 3월 9일 운산 학장 스님이 4급 승가고시에 고시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치문반 스님들이 사리암과 문수선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3월 12일 벌어사에서 봉행된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운문사 59회 졸업생 스님들 22명이 수계하였습니다. 일진 율주 스님이 교수아사리로 참석하였습니다.
- 3월 14일 선열당에서 용학 스님의 토요일 화엄경 득강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21일 화엄반 스님들이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으로 자비탁발을 다녀왔습니다. 탁발 금액은 뒤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돕기에 기부하였습니다.
- 3월 23일 청풍료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 3월 25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 재무 지상 스님 인솔하에 총 2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청풍료에서 봄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 3월 27일 진광 강주 스님과 교수 스님들이 법룡사에서 개최된 제16차 비구니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 3월 28일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1일 동화사에서 봉행된 뒤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대법회에 총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청풍료에서 법공양과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 4월 4일 봉녕사에서 봉행된 제31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서 사교반 13명, 회엄반 2명이 수계하였습니다. 일진 율주 스님이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6일 운산 학장 스님이 1급 승가고시에, 21일 3급 승가고시에 고시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4월 9일 운문사에서 대자원 법회가 있었습니다.
- 4월 19일 선열당에서 김성칠 교수님의 중관론 특강이 있었습니다.
- 4월 21일 처진 소나무에 막걸리 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4월 24일 청암사에서 개최된 비구니 교우회에 교수스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4월 29일 4월 27일 입적하신 고 운산 학장 스님의 영결식 및 다비식이 있습니다.
- 5월 3일 비로전에서 고 운산 학장 스님의 초재가 있습니다.  
청풍료에서 자자 및 방학공사가 있습니다.
- 5월 4일 봄방학입니다. 방학 기간은 35일입니다.

## 도와주신 분

- 삼신사 • 김상달 • 조서영 • 조정일 • 이재영 • 주건우 • 채수원/이병석  
• 하옥희 • 정해옥 • 이정숙 • 윤희숙 • 한미영 • 이수진 • 최희영  
• 장익수 • 한기듬 • 봇다선원 • 법등(김인태)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신중기도 임재



▲ 치문반 사리암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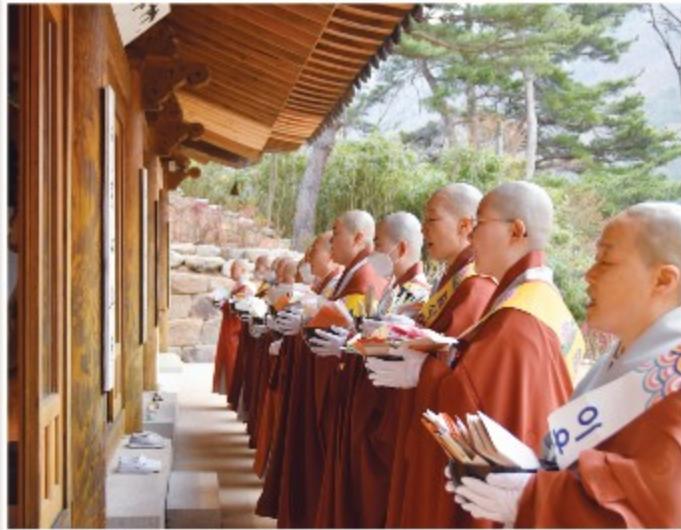
▲ 봄철 첫 자자



▲ 봄철 법공양



▲ 벚꽃길 안행



## 걸식乞食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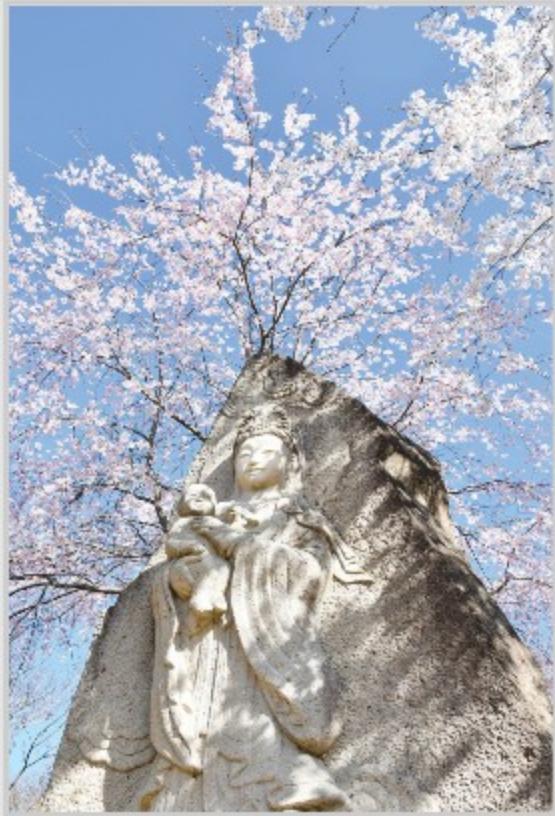
선남자야, 보살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여 걸식이라고 이름하니  
 어떤 것이 열 가지인가?  
 첫째, 모든 중생을 거두기 위하여,  
 둘째, 차례를 지키기 위하여,  
 셋째,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기 위하여,  
 넷째, 만족을 알기 위하여,  
 다섯째, 널리 나누기 위하여,  
 여섯째, 탐하거나 즐기지 않기 위하여,  
 일곱째, 양을 알기 위하여,  
 여덟째, 선한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아홉째, 선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열째, 나를 집착하는 생각을 여의기 위하여 걸식을 행하느니라.

– 『불설보우경佛說寶雨經卷』 – 3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두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眞觀清淨觀 廣大智慧觀

悲觀及慈觀 常願常瞻仰

진실한 관관이고 청정한 관관이고

큰 지혜의 관관이며

괴로움을 없애주는 관관이고 즐거움을 주는 관관이니

항상 원하고 사모하옵니다

-『요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中 -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별호·통권 제163호·2023년 4월 29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대겸 / 편집위원·대겸, 혜건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대겸 / 편집디자인·디자인 마루 (053)426-3396